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6월 21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

베드로전서 2:11 / 새찬송가 582 (통일 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1. 권세와 힘이 있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판단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판단하는 자는 판단 받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힘을 가졌습니다.

사실 빌라도로부터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라도를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를 판단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살릴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빌라도가 더 권세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사실 권세와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요10:18).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거짓보다 힘이 있습니다. 진리가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지 거짓이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판단과 섬세함이 있습니다

판단하느냐 판단 받느냐의 문제는 섬세한가 덜 섬세한가의 문제입니다. 섬세한 것이 덜 섬세한 것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보다 더 섬세하여 인간의 혼과 영과 육신을 찢어 쪼개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말을 판단합니다(히4:12).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즉 ‘섬세하게 다듬어지지 못한 채 날 것으로 분출하는 인간의 욕망’을 판단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인간이 사는 삼차원의 세계보다 높은 사차원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고전 2:14,15).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럴지 못한 자를 판단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육체의 정욕을 통제해야 합니다(벧전2:11). 이는 본능의 욕구를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 주어지는데 그 양심적인 판

단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3. 패망하는 자와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섬세한 것이 섬세하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걸리는 일은 반드시 그만둬야 합니다.

섬세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이고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에서가 눈앞의 팔죽 한 그릇을 영적인 축복인 장자의 명분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은 섬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섬세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며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자 은 삼십에 팔아넘겼고 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영원한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나 영적인 생각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현실이나 마음의 동기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만하다고 여겼으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영을 일깨우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육신적으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헐박에 낙심하여 호렙산 굴에 숨었을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 거대한 불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큰일이 아니라 큰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섬세한 것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섬세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섬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